ISSN 2509-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2023. Vol.8 No.1

중세 유럽 문장(紋章)의 디자인, 구성, 상징

대학 문장과 길드 문장을 중심으로

Design, Composition, and Symbol of Heraldry in Medieval Europe

Focusing on University Heraldry and Guild Heraldry

주저자 : 고봉만 (Ko, Bong Mann)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
(hermes6311@chungbuk.ac.kr)
공동저자 : 김경화 (Kim, Kyung Hwa) 충북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 김연순 (Kim, Yun Sun)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 안상원 (Ahn, Sang Won) 충북대학교 유럽문화연구소 연구원

https://doi.org/10.46248/kidrs.2023.1.488

접수일 2023. 1. 12. / 심사완료일 2023. 1. 18. / 게재확정일 2023. 1. 21. / 게제일 2023. 3. 30.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국립대학육성사업(2021)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2021)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inciples of composition and symbolic meanings of university heraldry and guild heraldry in medieval Europe based on the concept of Thick Discription of Clifford Geertz, a champion of symbolic anthropology. Thick Discription is one of methodologies of cultural studies that helps to demonstrate cultural symbols and signs in the context used. It enables to elucidate complex conceptual structures, many of them superimposed on or knotted into one another, which are strange, inconstant and concealed. We will infer how medieval heraldry as a symbolic sign influences modern visual culture, especially symbol marks because modern university symbols and corporate logos have been rooted in medieval university heraldry and guild heraldry respectively. This paper provides useful academic materials that visual designers and design researchers can refer to.

Keyword

University Heraldry(대학 문장), Guild Heraldry(길드 문장), Civic Heraldry(도시 문장),

---

요약

본 연구는 중세 주요 유럽 대학 문장과 길드 문장의 구성 원리와 상징적 의미를 상징 인류학의 대가인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중층 기술의 개념에 입각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층 기술이란 문화적 상징이나 기호를 사용된 맥락에서 파악하는 문화학의 방법론 중 하나다. 낯설고 무질서하며 동시에 은폐된 상징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적 문맥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론에 기초해 상징기호로서 문장이 현대 사회의 심볼 마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추론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대학 상징은 중세 대학 문장에, 오늘날의 기업 로고는 중세 길드 문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현대 디자인 제작자와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학술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기어츠의 중층 기술
2-2. 중층 기술로서 도시 문장

3. 중세 대학 문장

3-1. 남유럽 대학: 이탈리아와 이베리아반도
3-2. 서유럽 대학: 프랑스와 독일
3-3. 영국과 미국의 대학

4. 중세 길드 문장

4-1. 구체적인 형상 문장
4-2. 상징적인 형상 문장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중세 유럽 문장(紋章)은 현대 사회의 심볼 마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문장에 대한 학술적 사료는 다소 미비하고 연구 성과는 부족한 상태"[13]다. 최근 문장에 기원한 현대 기업 마크를 소개하는 두 권이 책이 영국에서 나왔다. 『현대문장 1』에는 중세 문장에 유래한 380개의 현대 로고가, 2020년 『현대문장 2』에서는 347개의 세계적 기업 로고가 실렸다. 부연 설명 없이 로고만을 보여주는데도 이 신생 출판사에 보이는 관심은 뜨겁다. 유럽인들에게 문장은 그만큼 자연스러운 시각 상징물이기 때문에 사진만 보아도 현대 기업의 마크에 끼친 중세 문장의 영향이 가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 사는 우리에게 서양 문장은 여전히 생소하다. 앞서 언급한 김문석의 지적처럼 연구도 미비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갖추고 학술적 연구를 축적할 시점이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문장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활발하게 쓰이는 유서 깊은 중세 도시 문장과 유럽 대학 문장의 구성 원리와 의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길드 문장을 구체적인 형상 문장과 상징적인 형상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해 현대 로고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학술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징 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중층 기술론(Thick Discription)을 방법론으로 활용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기어츠의 중층 기술

문화는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에 기어츠는 중층 기술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층 구조로서의 문화는 "낯설고, 불규칙하고, 은폐되어 있어서 문화학자의 임무는 처음부터 그것을 붙잡고 해석하는 것"[14]이라고 본다. "Wink나 Blink가 모두 눈을 깜박이는 신체 움직임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윙크는 일종의 공모(共謀)가 일어나는 상황을 지칭하므로 중층 기술은 윙크를 블링크로 기술하지 않는다"[15]는 것이다. "사회학에서 활용되던 중층 기술이 최근 비교문학이나 컴퓨터 UX 디자인 같은 다학제적 연구의 방법론으로 쓰이는"[16] 것은 "기호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17]이라고 미술 비평가 윌레트(Jeanne Willette)는 주장한다. 어떤 사회적 행위를 특정한 문맥 안에서 기술하고 또 동시에 해석하는 것은 상징기호(Symbolic Sign)의 해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상징기호로서 문장을 중층 기술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시대나 개인의 지위 변화에 따라 문장 문양이 가감되고 포개지는 등 변형을 겪기에 문장은 표층적 기술로는 적절하게 해석될 수 없다. 둘째, 같은 문양이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문장은 그 사회의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용은 동양권에서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로 취급되어 군주의 의복에 등장하지만, 서양권에서는 퇴치해야 할 악을 상징한다. 중세 역사가 스미스(D. Vance Smith)가 문장이야말로 "고도로 복잡한 사회적 장면의 환유로 중층 기술의 대상"[18]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표 1]의 중세 영국 수산물 상인 길드의 문장 변천을 보면 알 수 있듯, 문장 자체도 시대에 따른 변화를 중층적으로 기술하는 싱징 기호다.

[표 1] 중세 영국 런던의 수산물 상인 길드의 변천

길드	건어물 상인	생선 상인	공인 수산물 유통
문장			

중세 길드는 세분화되어 존재했다. 생선을 유통하는

13) 김문석 · 심재현, 기업 로고의 상징과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디자인 리서치』, 21-1 (18), 2022. p.3.

14)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p.10.

15) Ibid., pp.6-7.

16) HORTUS SEMIOTICUS. (2023.01.05.). URL:https://www.hortussemioticus.ut.ee/blog/speak-semiotics/what-is-a-thick-description/

17) Art History Unstuffed. (2023.01.05.). URL:https://arthistoryunstuffed.com/art-and-thick-description-part-one/

18) D. Vance. Smith, *Arts of Possession: The Middle English Household Imaginary*, Minnesota UP, 2003, p.89.

직종의 경우 다루는 생선의 종류에 따라 길드도 나뉘었다. 건어물을 판매하는 길드는 생선 두 마리가 교차하는 문장을, 생선을 파는 길드는 고래 세 마리가 일렬로 배치된 문장을 썼다. 중세 초부터 두 길드는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생선 상인 길드의 권력이 더 커지면서 건어물 길드의 합병이 가시화된다. 어떤 문양을 통합 문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국 생선 상인 길드의 고래를 중앙에 놓는 대신 건어물 상인의 물고기 숫자를 두 배로 늘려 양측에 배치하는 문장에 합의한다. 새롭게 탄생한 '수산물 유통'(Worshipful Company of Fishmongers) 길드는 1512년 왕의 공인을 받고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열쇠를 문장에 추가한다. 하지만 영국이 수장령을 발표한 1534년부터 열쇠는 문장에서 빠지게 된다.[19] 이처럼 문장은 시대에 따라 의미의 층을 달리하는 중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장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문양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별을 합친 헥사그램(Hexagram)은 유대교에서는 '다윗의 별'을, 고대 아랍에서는 '연금술적 완성'을, 중세 독일에서는 '양조장 길드'를 상징했다. 같은 문양도 이처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문장이 상이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문화적 상징이나 기호를 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중층 기술이 본 연구에 필요한 이유다. 다음으로 중층 기술로서 문장이 어떤 의미를 배태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쓰였는지 도시 문장을 통해 설명하겠다.

2-2. 중층 기술로서 도시 문장

중세 기사의 식별 표지로 12세기 유럽에 등장한 문장은 14세기에 오면 일반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다. 봉건제가 약화되고 시민 계급이 부상한 덕분이었다. 상공업 발달은 사람들을 도시로 몰려들게 하였다. 도시의 성장은 도시의 특색과 도시민의 자긍심을 표상하는 문장을 낳게 된다. 도시의 역사와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문장에 축적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 문장은 개인이나 가계에 귀속되는 귀족 문장과 달리, 도시 거주민의 공동 소유라는 특이성을 지녔다. 소속감은 물론 도시 공간에 퇴적된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소망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공동체의 지향까지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 스며들게 되었다.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압축된 도시 문장 가운데 바티칸 시국, 런던, 파리의 문장을 살펴보자.

[표 2] 바티칸, 런던, 파리의 도시 문장

도시	바티칸	런던	파리
문장			

먼저 바티칸은 티아라 관이 있는 유일한 도시 문장이다. "교황은 세속의 권위를 드러내는 관 대신 '티아라'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존재"[20]기 때문에 교황을 모신 바티칸 시국만이 문장에 티아라를 쓴다. 붉은 바탕에 엇갈리게 놓인 금 열쇠와 은 열쇠는 예수가 베드로에게 약속한 '천국의 열쇠'다. 교황관 위 작은 십자가는 "대립적인 하늘과 땅을 결합하는 상징"[21]이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신자라면 교황을 따라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바티칸시 문장은 말하고 있다.

런던시 문장은 문장 규칙을 엄격하게 지킨 대문장이다. 방패의 붉은 십자가는 게오르기우스(St. George) 성인을, 붉은 검은 성 바울(St. Paul)을 각각 상징한다. 방패를 붙들고 있는 용은 게오르기우스가 처치한 용을 암시한다. 투구 위에서 펄럭이는 붉은 십자가는 게오르기우스의 십자가를 만난 용이, 악한 본성을 순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Domine dirige nos)라는 모토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파리시 문장은 성곽을 왕관처럼 쓰고 월계수 잎을 서포터처럼 두른 창의적인 형태다. 방패의 2/3는 흰 배가 항해하는 장면이고, 1/3은 프랑스 왕실 문장이다. 배는 중세 시대 센강 무역을 독점했던 물 상인의 인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프랑스 왕실 백합 문양을 첨가해 파리가 왕과 시민의 도시임을 드러냈다. 봉건의 잔재라는 이유로 프랑스 혁명과 함께 사라졌던 백합이 1844년 도시 문장에 다시 등장한 것은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배는 파도에 흔들려도 파도에 가라앉지는 않는다'(Fluctuat nec mergitur)

19) Marcus Meer, Heraldry, Corportate Identity, and Battle for Symbolic Capital in Late Medieval London, *The London Journal* 47(3), 2022, pp.3-9 요약.

20) 김경화 외, 『문장과 함께 하는 유럽사 산책』, 글항아리, 2019, p.107.

21) Manfred Lurker, *Woerterbuch der Symbolik*, Stuttgart, 1991, p.406.

는 모토는 역사의 부침에도 파리는 건재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는 “건강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22]는 역사적 교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 문장은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역사적 사건이나 전설, 지향을 담고 오랫동안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파리시 문장이 대혁명의 진통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파리를 그리고 있다면, 바티칸 시국 문장은 중세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구원의 길을 약속하고 있다. 런던시 문장은 성 게오르기우스와 용의 위용의 통해 거친 본성을 순화해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용기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3. 중세 대학 문장

3-1. 남유럽 대학: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

중세 유럽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서약공동체로 결성된 길드(Guild)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왕권과 교권으로부터 독립해 자기 이익을 주장했던 자치도시의 의지가 가세하면서 대학 발전을 견인했다. 시민권의 영향이 특히 강했던 북이탈리아에 세계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것도 이런 경제적 배경 때문이었다. 먼저 이탈리아의 볼로냐 (Bologna) 대학과 파도바(Padova) 대학 문장을 살펴본 후 이베리아반도의 코임브라(Coimbra) 대학과 살라망카(Salamanca) 대학 문장을 비교 분석한다.

볼로냐는 일찍이 교황과 황제의 세력, 도시의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지역이다. 이 문제를 시민들은 법을 해결하고자 우수한 법학자들을 도시에 초빙했다. 당시 로마법 권위자였던 이르네리우스((Irnerius)가 법학을 강의하러 오자 유럽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학 설립으로 이어졌다.

22) 고봉만, 프랑스 왕실 백합 문장의 역사와 의미 연구, 『비교문화연구』 57, 2019, p.169.

[표 3] 이탈리아 대학 문장

	볼로냐 대학	파도바 대학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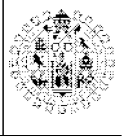
볼로냐 대학 문장은 맨 위에 도시 문장을 넣고 다섯 단위 학생 조합을 그 아래 배치했다. 상단 왼쪽은 법학생 길드로, 법학자의 수호신 성녀 가탈리나가 성모를 알현하는 문양을 취한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왼쪽 상단(착용자 입장에서 오른쪽 상단)에 법학 길드를 두어 이 대학의 뿌리임을 강조했다. 상단 오른쪽은 의대생 길드로, 아랍 출신의 쌍둥이 의사인 성 코즈마(Saint Cosma)와 다미아노(Damiano)상징을 쓴다. 이는 볼로냐 대학이 이슬람과 교류해 선진적인 아라비아 의학을 흡수했음을 암시한다. 하단 중앙은 의학 칼리지로, 의사의 수호성인 성 루카(St Luca)가 자신의 상징인 황소 앞에 앉은 문양이다. 하단 왼쪽은 교회법 칼리지며, 오른쪽은 민법 칼리지다. 전자는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를, 후자는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각각 상징으로 쓰고 있다.[23]

볼로냐 대학생들이 지적 자유를 찾아 1222년 세운 파도바 대학의 문장은 비교적 단순하다. 오른손에 수레바퀴를 들고 왼손에는 펜을 쥔 여성과 십자가 깃발을 든 남성이 전부다. 여성은 왜 바퀴를 들고 있을까? 파도바는 에젤로노(Ezzelino)가문의 독재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지역이다. 시민들은 이 가문을 축출하고 자코포 다 카라라 (Jacopo da Carrara)를 새 영주로 세운 후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다. 그런데 카라라 가문의 문장이 바로 수레바퀴다. 따라서 여성이 들고 있는 바퀴와 펜은 도시의 자유를 통해 학문의 자유를 얻었다는 파도바 시민의 긍지를 암시한다.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거듭된 외세 침략을 겪은 나라다. 고대 6백년 동안은 로마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곧이어 이주한 각양각색의 게르만족들의 싸움터가 되었다. 그리고 8세기부터는 이슬람 지배를 받아 다시 여러 공국으로 분열된다. 15세기 말에야 레콩키스타(기독교 국가의 국토회복 운동)가 완수되어 국가적 면모를 갖추게 된다.

23) ALMA MATER STUDIORUM. (2023.01.05.) URL: www.unibo.it 〈Visual Identity Guidelines〉 요약

[표 4] 이베리아 반도 국가의 대학 문장

	코임브라(포르투갈)		살라망카(스페인)	
	도시	대학	도시(공국)	대학
문장				

포르투갈의 코임브라(Coimbra) 대학 문장에도 이런 복잡한 역사가 숨 쉬고 있다. 도시 문장 속 여성은 5세기 경 이 지역을 차지했던 수베이(Subei) 왕국의 신다준다(Cindasunda)공주로, 기독교를 수용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수베이가 이란계 유목민 알란(Alans)족 침공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는 아버지 헤르메네리쿠스(Hermenericus)와 함께 협상에 참여할 정도로 지혜로웠다. 이때 알란족 지도자 아타세스(Ataces)는 공주에게 반해 결혼하게 된다. 황금 컵에 들어간 신다준다가 오른편에는 녹색 용을, 왼편에는 황금 사자를 대동한 채 기도를 올리는 형상은 원래 결혼을 기념하는 휘장이었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용과, 남편을 나타내는 사자를 화합하는 신다준다는 도시 문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24] 이후 왼손에는 책을 오른손에는 홀을 쥔 모습으로 코임브라 대학 문장에 등장한다. 디니스(Dinis) 왕이 이슬람 축출을 기념해 세운 대학의 문장으로 신다준다야말로 적격이었던 것이다.

코임브라 대학처럼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도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기념으로 세워진 대학이다. 하지만 도시가 지닌 이야기보다는 왕국과 기독교의 위용에 집중한 상징을 쓴다는 점이 다르다. 카스티야-레온 연합국의 알폰소 9세(Alfonso IX)가 세운 이 대학은 문장 중앙에 교황관과 열쇠, 교황을 모신 후 주변에 레온 공국의 사자와 카스티야 공국의 성(城)을 배치한다. 맨 아래 교황의 발치에 엎드린 네 사제는 가톨릭 국가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한다.

이베리아반도의 두 대학 문장은 가톨릭 상징을 중앙에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포르투갈의 코임브라 대학이 이교도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을 상징으로 내세운 반면,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은 교황을 문장에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다르다. 16세기 종교재판소가 스페인에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차이는 쉽게 이해된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군주가 중심이 되어 대학을 건립했다는 점은 자치도시의 힘으로 대학을 세운 이탈리아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24) Charles McKew Parr and others, *Bellezas de Coimbra*. Wentworth Press, 2019, pp.9-12 요약.

3-2. 서유럽 대학: 프랑스와 독일

서유럽에 위치한 프랑스 파리(Paris) 대학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 쾰른(Köln) 대학은 성격이 다른 문장을 쓴다. 전자가 왕실 문장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후자는 도시의 수호성인을 중심에 두고 도시 문장을 곁들이는 형식을 취한다. 프랑스 대학이 왕실 지원으로 성장했다면 독일 대학은 시민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먼저 파리대학부터 살펴보자.

파리 대학은 교사가 돈을 받고 학생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기숙학교, 콜레주(collège)에서 출발했다. 왕과 교황은 콜레주를 경쟁적으로 지원했다. 왕은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이데올로기 생산지가 필요했고, 교황은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지적 토대가 되어주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루이 성왕(Saint Louis)의 고해 신부로 있었던 소르본(Robert de Sorbon)의 콜레주 소르본(collège de Sorbonne)은 파리대학의 모태가 되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르본 가문의 문장인 수레바퀴 모양을 콜레주 상징으로 쓰다가 대학으로 성장하면서 카페 왕실 문장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책을 더해 파리대학이 신학의 본산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표 5] 중세 파리 대학의 문장

	소르본 콜라쥬	파리 대학
문장		

68혁명 후 파리 대학은 13개 대학으로 분리되어 숫자로 표기되었기에 [표 5]의 문장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대학을 다시 통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파리 4 대학과 6 대학을 합해 소르본 대학교로, 파리 5 대학과 7 대학을 합쳐 파리 시티 대학교로 출범시키면서 [표 6]과 같은 새로운 로고를 쓰게 되었다. 소르본 같은 경우는 대학의 특징적 건물과 대학 이니셜을, 파리 시티 대학교는 에펠탑과 대학 이니셜을 각각 결합했다. 새 로고는 세련된 분위기는 있지만 중세 파리 대학 문장이 지녔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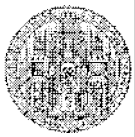
중층적인 의미는 희석된 느낌이다.

[표 6] 현대 일부 파리 대학의 문장

	소르본 대학	파리 시티 대학
문장	SORBONNE UNIVERSITÉ	Université Paris Cité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루프레히트 1세(Ruprecht I)가 설립했다. 이 대학은 파리 대학을 모델로 하였지만 파리 대학과 달리 군주의 문장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도시의 수호성인인 사도 베드로를 강조한 문장을 쓴다. 문장에서 루프레히트와 그의 조카는 베드로를 향해 공손히 무릎을 꿇고 있다. 왼쪽의 루프레히트 1세는 바이에른(Bayern) 가문의 파란 다이아몬드 문장을, 오른쪽 루프레히드 2세는 하이델베르크의 사자 도시 문장을 들고 있지만, 너무 작아 눈에는 거의 띄지 않는다.

[표 7] 독일 대학의 문장

	하이델베르크		쾰른	
	도시	대학	도시	대학
문장				

쾰른 대학은 1388년 시민의 힘으로 세워졌다. 시민 자본임을 강조하고자 도시 문장이 대학 문장 맨 아래 중앙에 비교적 큰 형태로 등장한다. 쾰른 도시 문장은 원래 11개 불꽃인데, 대학 문장에서는 조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문장의 전체 형상은 동방박사들이 지혜의 의자에 앉은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모습이다. 동방박사 중 한 명은 태어난 아기가 베들레헴의 별임을 손을 들어 표시하고 있다.

3-3. 영국과 미국의 대학

영국 대학의 문장은 도시 문장과 마찬가지로 문장 규범을 엄격하게 지킨다. 문장에서 쓰는 컬러만 쓰고 있으며 컬러와 금속 색상을 겹쳐 쓰지 않는다는 문장 규칙을 대학 문장 뿐만 아니라 학교에 복속된 모든 단과대 문장도 엄수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대학 문장은 중세 문장 규칙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방패 모양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두 나라 대학의 문장은 공통적이다. 방패 모양보다 원형이나 타원형을 더 많이 쓰는 다른 유럽 대학과 영미권 대학의 문장이 구분되는 지점이다. 먼저 영국을 대표하는 두 대학, 옥스퍼드(Oxford) 대학과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의 문장을 살펴본 후 하버드(Harvard) 대학 문장을 분석한다.

[표 8] 영국과 미국의 대학 문장

영국		미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영국의 헨리 2세(Henry II)가 세운 옥스퍼드 대학은 39개 칼리지와 6개 홀로 구성된 대학이다. 파랑 바탕 중앙에 책을 펼쳐 놓고 세 왕관으로 둘러싼 모양의 로고를 쓴다. 책에는 'Dominus Illuminatio Mea'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라는 모토가 있다. 세 왕관과 책은 이곳이 진리의 전당임을 암시한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주민간 분쟁을 피해 온 옥스퍼드 대학생과 일부 학자들로 어렵게 출발했지만,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곧 성장했다. 청교도 전쟁 때는 대학에 부속된 엠마누엘 칼리지(Emmanuel College)가 청교도 본산 역할을 할 정도로 현실 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대학 문장은 적색 바탕을 담비 무늬 십자가로 사분할 한 다음, 황금 사자 네 마리를 배치하고 중앙에 걸쇠 달린 성경을 올려놓은 문양이다. 왕족만 의복이나 문장에 쓸 수 있었던 담비 무늬를 영국 왕실 상징인 사자와 함께 쓰는 것으로 볼 때 왕실의 관심을 옥스퍼드 대학보다 더 받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는 케임브리지 대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엠마누엘 칼리지를 졸업한 영국 청교도들 가운데 다수가 신대륙의 매사추세츠로 와 그 일부 지역을 케임브리지라 명명하고 대학을 지었기 때문이다. 대학은 1636년 식민지 일반의회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기부한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 하버드로 명명되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 문장은 문장과 구성 면에서 케임브리지 보다는 옥스퍼드에 더 가깝다. 옥스퍼드 대학의 펼친 책을 차용했으며 세 왕관 대신 세 권의 책

을 쓰고 있다. 또 책에 라틴어 글자가 있다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다만 옥스퍼드 대학 문장이 'Dominus Illuminatio Mea' (그리스도는 나의 빛)라는 뜻이 통하는 구절을 쓴 반면, 하버드 대학 문장은 '진리'를 뜻하는 라틴어 'VERITAS'를 분리 배치한 점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문장에 글자를 활용하는 것은 원래 이탈리아 전통이다. 하버드 대학 문장은 방패 모양을 쓴 점에서 영국 문장을, 글자를 문장에 넣은 면에서 이탈리아 문장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4. 중세 길드 문장

길드 문장은 도시 문장과 대학 문장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조직 내 결속과 연대를 꾀하면서도 책임 소재와 특권을 명시할 필요"[25]는 생업을 짊어진 길드에게 절실한 것이었다. 길드 문장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체를 결집하고, 외부적으로는 생산자의 특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실용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 점에서 길드 문장은 오늘날의 상업 광고와 유사하다 하겠다. 무질서하게 쓰이던 길드 문장은 16세기에 이르러 중앙의 인증을 받으며 통일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26] 공식인증은 길드 문장에 '명예'라는 상징 자본을 하사했다. 이제 길드 문장이 특히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길드 문장을 구체적 형상과 상징적 형상으로 구분해 설명해 보겠다.

4-1. 구체적인 형상 문장

길드 문장은 대부분 구체적 형상을 취한다. 문맹률이 지극히 높았던 중세에 글자보다 그림은 손님의 이해를 돕는 데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직종과 관련된 일상 사물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될 때 고객의 관심도 더 받을 수 있었다. [표 10]에 제시된 길드를 한 번 살펴보자.

제빵사 길드는 단순하게 브레첼 빵을 묘사한 문장을, 정육업자 길드는 소머리 아래 도축용 도끼를 엇갈려 놓은 문양을 쓰고 있다. 구두 제조공 길드의 문장에는 구두와 함께 구두 제작에 필요한 재단용 칼과 바늘이 등장한다. 짚단에 도리깨와 낫을 세워 둔 것은 누가 봐도 농부의 문장이다. 주로 옷을 만들 때 쓰는 커다란 가위는 양복장이의 문장인데, 독일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양복장이는 대부분 가위 문양을 문장으로 사용하였다.

대패, 직각자, 컴퍼스는 목재를 측량하고 다듬을 때 사용되는 것이므로 세 도구가 나오는 문장은 목수 길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도구가 주로 나오는 다른 길드와 달리 보석 세공사 길드 문장에는 완성된 물건이 등장한다. 육각형 도형 속에 묘사된 금반지 세 개와 은잔 형상은 각각 금세공과 은세공을 나타낸다. 양조업자 문장은 맥주의 주재료인 보리가 커다란 술통에 꽂힌 채 제시된다. 맥아를 다룰 때 쓰는 삽과 국자도 보리와 함께 술통에 꽂아두어 맥주 양조장임을 분명히 한다.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길드는 수레바퀴를 고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엇갈려 놓고 그 아래 바퀴를 묘사해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하였다.

[표 9] 중세 길드 문장

길드	제빵사	정육업자	제조공
문장			

길드	농부	양복장이	목수
문장			

길드	금세공사	양조업자	수레바퀴 제작자
문장			

중세 독일 길드 가운데서 제빵사 길드는 역사적인 사건과 많은 이야기를 문장에 담고 있다. 이 문장이 처음 나온 1111년에는 [표 9]에서 보았듯 단순한 브레첼 문양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왕관, 검, 사자가 점차 추가된다. 제빵사의 업적을 왕이 치하하면서 영광과 보상의 표시가 더해진 것이다. 1529년 튀르키예가 오스트리아의 빈을 공격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Karl V)는 두 마리 사자 형상을 빈의 제빵사 길드에게 수여한다.[27] 당시 튀르키예 군대는 도시로 들어가

25) 하마모토 다카시(저), 박재현(역), 문장으로 보는 유럽사, 달과소, 2004, p,152.

26) Gert Oswald, *Lexikon der Heraldik*, Regenstauf: Battenberg, 2006.

기 위해 야밤을 틈타 성벽 밑을 파내 통로를 뚫고 있었다. 항상 밤에 작업하던 제빵사들은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적군과 싸웠다. 황제는 이를 치하하기 위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자를 제빵사들에게 하사했던 것이다.

[표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후 제빵사 문장은 두 마리 사자가 브레첼 빵 위로 검을 교차하는 형상으로 바뀐다. 빵 위에는 왕관이, 그 아래에는 작은 롤빵 4개가 배치된다. 오늘날 제빵사 협회는 왕관과 검을 생략하고 두 마리 사자가 브레첼 빵 두 개를 들고 선 변형된 문장을 쓰고 있다.

[표 10] 제빵사 길드 문장의 변화

길드	제빵사 16세기	제빵사 현재
문장		

4-2. 상징적인 형상 문장

상징적 형상을 쓰는 길드 문장은 다채로운 의미의 지층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형상 문장과 구별된다. [표 12]에서 대장장이 길드의 문장은 대장장이의 필수 도구인 망치와 불집게가 있어 구체적인 형상 문장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앙의 뱀은 대장장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에 이 문장은 상징적인 형상 문장에 속한다. 그렇다면 왜 대장장이 길드에 뱀이 나타나는 것일까? 먼저 의술을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뱀은 지팡이를 휘감은 형상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문장에는 지팡이가 없다. 따라서 이 뱀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피스 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아스피스 뱀은 메두사의 피에서 생겨난 것으로 악을 상징하지만, 불을 다스리는 신비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 점 때문에 대장장이 문장에 나타나 이들의 작업이 지니는 전문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육업자 길드는 [표 9]의 소머리와 도끼 문장 외에도 [표 11]의 두 번째 그림처럼 어린 양을 묘사한 상징 문장을 쓰기도 했다. 파란 바탕에 십자가 깃발을 진 흰색 양은 '신의 어린 양', 즉 '아뉴스 데이(Agnus Dei)'의 거룩한 표상이다. 신의 어린 양은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중세인들은 식용동물의 희생으로 삶의 양식을 얻는 일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과 나란히 이해했던 것이다.

양조업자 길드는 [표 9]처럼 맥주 생산과 관련된 사물과 도구를 묘사한 구체적 형상 문장을 쓰기도 했지만 상징 문장도 사용했다. 바로 헥사그램이다. 두 개의 정삼각형이 하나는 위를 향하고, 하나는 아래를 향하며 얽히는 헥사그램은 고대부터 대립적 요소들의 결합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집의 안녕, 화재로부터 보호, 건강과 여행의 안전을 위한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성경 외 전승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방패에 새긴 문양이 헥사그램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민간신앙은 헥사그램이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본다.[28] 하지만 독일 남부지역에서 헥사그램은 연금술의 최종 목적인 대립적인 힘의 결합으로 이해되었다. 물과 불이라는 대립 요소가 만나서 발효를 통해 맥주를 만드는 양조 과정은 연금술의 표상과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표 11] 상징적인 형상의 길드 문장

길드	대장장이	정육업자	양조업자
문장			

5. 결론

중세 유럽 문장은 역사적 사건과 이야기, 공동체의 지향점을 압축한 상징적 기호라는 점에서 기어츠의 중층 기술을 토대로 해석될 수 있다. 학자와 학생의 길드에서 출발한 중세 대학의 문장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와 그 공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념을 담은 상징기호였다. 길드 문장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형상 문장은 길드의 일과 길드의 수요자를 연결하는 상징이었다. 상징적인 형상 문장은 상징성을 더욱 강화해 길드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한껏 드러냈다.

중세 대학의 문장은 근대 이후 설립된 대학의 로고

27) Kreishandwerkerschaft Süd-Ost-Niedersachsen. (2023.01.05.). URL:https://kh-son.de/groups/2-backer

28) Georg Eisner, *Vom Hexagramm zum Davidstern. Sein Weg zum Symbol der Juden*, 2013, p.33.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길드 문장 역시 길드의 해체와 함께 그 실질적 기능은 사라지거나 약화되었지만 오늘날 상업적 엠블럼과 로고의 뿌리가 된다. 따라서 중세 대학과 길드의 문장 연구는 현대의 디자인 제작자와 디자인 연구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학술적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봉만 외, 세계의 문장, 문장의 세계, 신아사, 2021.
2. 김경화 외, 문장과 함께 하는 유럽사 산책, 글항아리, 2019.
3. 김문석 · 심재현, 기업 로고의 상징과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디자인 리서치 21-1 (18), 2022.
4. 다카시, 하마모토(저), 박재현(역), 문장으로 보는 유럽사, 달과소, 2004.
5. Counter Printer, Modern Heradlry 1, The Counter Press, 2015.
6. Counter Printer, Modern Heradlry 2, The Counter Press, 2020.
7. Eisner, Georg, Vom Hexagramm zum Davidstern. Sein Weg zum Symbol der Juden, 2013.
8. Garden Stone, Das Hexagramm, Garden Stone, 2002.
9.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1973.
10. Manfred, Lurker, Woerterbuch der Symbolik, Stuttgart,1991.
11. Meer, Marcus, Heraldry, Corportate Identity, and Battle for Symbolic Capital in Late Medieval London, The London Journal 47(3), 2022.
12. Oswald, Gert, Lexikon der Heraldik, Battenberg, 2006.
13. Parr, Charles McKew and others, Bellezas de Coimbra. Wentworth Press, 2019.
14. Staehelin, W. R., Die Schlange im Wappen der Schmiede, Schweizerisches Archiv für Heraldik, Bd.42, 1928.